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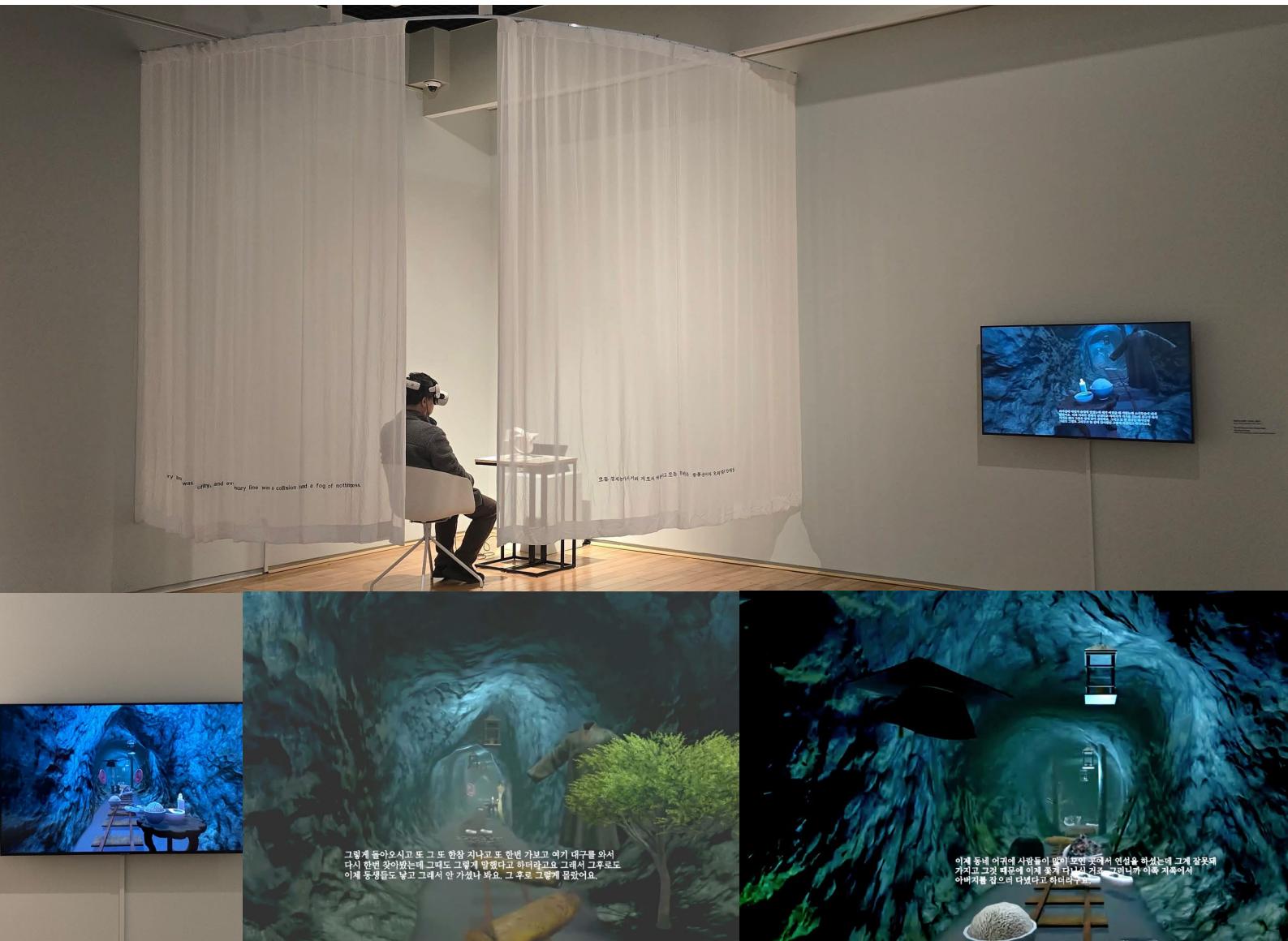
<아무도, 있다. (Nobody is here, yet Everybody is here)>

<https://youtu.be/NwIGiHiok6E>

김미련 & 손영득 감독, VR 가상현실 영상 설치 (VR 3D animation installation), 가변 크기, 2025

애니메이션&VR: 손영득 감독
나레이션 목소리: 이순애 배우

제주도립미술관, 광주 은암미술관, 서울 소마미술관 전시



경산 코발트 광산에는 2020년부터 자홍색 배롱나무가 심어지고 있으며, 유족들은 매년 어버이날에 이곳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1950년, 군경에 의해 10월 항쟁 및 보도연맹 관련자 등 약 3,500여 명이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처형되었고, 현재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이름은 배롱나무에 걸려 있다.

권○○ 여사는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친아버지의 성을 되찾아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여사는 건강 악화와 '빨갱이'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는 데 주저하였다.

결국 인터뷰는 성우의 목소리로 대체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북분단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다.

Since 2020, crape myrtle trees with purplish-pink blossoms have been planted at the Gyeongsan Cobalt Mine. Every year on Parents' Day, the bereaved families gather here to commemorate the victims.

In 1950, approximately 3,500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October Uprising and the Massacre of Members in the Converted Anti-Communist Group were illegally executed by the military and police forces at this site. Today, the names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ng from the branches of the crape myrtle trees.

Mrs Kwon ○○, who had long lost the surname of her biological father, was eventually able to reclaim it and be recorded under the name 'Lee ○○.' However, due to her deteriorating health and the lingering fear of being branded a 'communist,' she hesitated to reveal her face or voice publicly.

As a result, her interview was conveyed through the voice of a voice actor, reflecting the lingering shadow of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olitical ideology that persists to this day.

<4. 3 미술 네트워크 전시 연계 컨퍼런스 발제참여>

제주도립미술관, 2025. 4

〈4·3 미술 네트워크〉 전시 연계 컨퍼런스

빛과 숨의 연대: 미술과 민중 항쟁

2025. 4. 2. 수

14:00-18:00
제주도립미술관 강당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 제주도립미술관, 후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관계자

〈4·3 미술 네트워크〉 전시 연계 컨퍼런스

빛과 숨의 연대: 미술과 민중 항쟁

대항 기억과 예술 실천:
10월 항쟁 미술제의 태동을 위하여

김미련(작가)

컨퍼런스 일정

시간	주제	발표자
14:00 - 14:10	인사말	사회: 김용철(제주도립미술관 학예과장) 박진희(4·3 미술제추진위원장) 이종호(제주도립미술관 관장)
14:10 - 14:30	기조 발표	신학철(작가)
14:30 - 14:45	동학 미술 형태학 시론: 재현의 언더, 밤현의 골짜기, 현현의 틈	신용철(민주공원 학예실장)
14:45 - 15:00	대항 기억과 예술 실천: 10월 항쟁 미술제의 태동을 위하여	김미련(작가)
15:00 - 15:15	4·3 미술: 타오른 바람, 이어 든 빛	양동규(4·3 미술제 집행위원장)
15:15 - 15:30	5·18 민주화운동과 1980년대 광주·전남지역 민중미술운동	홍지석(단국대학교 교수)
15:30 - 15:45	동아시아의 역사 미술: 4·3 미술제 참여 작가를 중심으로	김연주(문화공간 양 기획자)
15:45 - 16:00	휴식	
		좌장: 변종필(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
16:00 - 17:20	지정 질의 및 토론	강재옥(작가, 독립기획자) 김정대(인디프레스 대표) 김지혜(홍익대학교 연구교수) 김화순(작가) 양정애(연구자, 독립기획자) 연미(작가)
17:20 - 17:50	자유토론	
17:50 - 18:00	폐회	

빛과 숨의 연대: 미술과 민중 항쟁

대항 기억과 예술 실천:
10월 항쟁 미술제의 태동을 위하여

김미련(작가)

1. 왜 지금, 대항 기억과 예술인가?

대구 10월 항쟁(1946년 10월 1일~22일)은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 친일 경찰의 부패, 노동자 총파업 등의 배경 속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항쟁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구 10월 항쟁은 이념적 논란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10월 항쟁 미술제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과거를 조명하며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 한다.

제주 4·3 항쟁, 광주 5·18 민주 항쟁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사건으로 국한되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전국적·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항쟁 역사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이들의 역사로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구 지역의 몇몇 단체들에 의해 각개 선발적으로 이루어지던 10월 전야예술제, 10월 문학제, 10월 추모예술제 등, 관련 문화예술행사들을 (가칭) 대구 10월 항쟁 미술제로 묶어내고 시민들의 10월 항쟁을 일상적인 관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예술을 통해 망각된 역사를 다시 강각하고, 공적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턱에 서 있다. 예술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억을 생성하고 강각의 지형을 재배치하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발표는 대항 기억의 개념과 예술의 실천 가능성을 바탕으로, 10월 항쟁 미술제의 태동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모색한다.

2. 대항 기억, 기억 투쟁, 그리고 예술

이처럼 10월 항쟁은 단지 하나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구조적 폭력과 망각의 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집약된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망각된 역사에 예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억의 이론적 지형을 살펴보고, '대항 기억'이라는 개념이 예술 실천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독일의 문화학자이자 기억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그녀는 기억